

클래식 명곡 산책 - 23 - 재즈와 탱고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음악 듣기
vo.la/9glJ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지난날을 떠올려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힘든 일들, 꼭 이어가길 바랐던 즐거웠던 일들... 어느덧 모두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께서 주신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즐겁길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올해 마지막 글은 음악으로 오늘을 삶을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지 거슈윈, 클로드 볼링 등 유명한 재즈 음악과, 피아솔라, 가르델 등 최고의 탱고 음악으로 일상을 녹이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조지 거슈윈(1898~1937) : 랩소디 인 블루(1924)

George Gershwin : Rhapsody in Blue for piano and orchestra

뉴욕 출신의 조지 거슈윈은 본래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던 클래식 음악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에는 애런 코플란드를 가르쳤던 루빈 골드마크와 미국의 아방가르드 음악의 거장이었던 헨리 코웰 등이 포함되어있었죠. 하지만 '틴 팬 앨리'(Tin Pan Alley)에서 일하면서 대중음악 작곡가로 전업했습니다. '틴 팬 앨리'는 당시 대중음악을 낱장 악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출판사들이 모여 있던 뉴욕 맨해튼의 한 동네였죠. 거슈윈은 이곳에서 자신의 곡을 출판하고 파티에서 자작곡을 연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 졸슨(Al Jolson)이 한 파티에서 거슈윈이 연주하는 <스와니>(1919)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의 공연에서 부르고 음반에 수록하면서, 거슈윈은 갑자기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거슈윈은 대중음악과 뮤지컬 분야에서 수많은 작품을 쏟아내며 미국에서 가장 바쁜 작곡가 중 한 사람이 되었죠. 가장 미국적인 음악은 재즈라고 생각했던 거슈윈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당시 뉴욕 최고의 재즈 빅밴드였던 폴 화이트먼의 밴드에서 피아노 연주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폴 화이트먼은 재즈의 황금기인 1920년대 뉴욕에서 '재즈의 왕'이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에 뉴욕 중심가의 에울리안 홀에서 심포닉 재즈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작품을 고민하던 중, 자신의 밴드 멤버이자 이미 작곡가로 유명했던 거슈윈에서 새로운 작품을 의뢰했죠. 이에 거슈윈은 단 열흘 만에 <랩소디 인 블루>를 완



조지 거슈윈 / 출처 : parisjazzclub.net



클로드 볼링 / 출처 : fanart.tv

성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빅밴드에 맞춰 편곡하지 못했고, 이 일은 화이트먼의 편곡자였던 퍼드 그로페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피아노와 재즈 밴드를 위한 <랩소디 인 블루>가 비로소 완성되었죠. 초연은 그해 2월 12일에 ‘현대음악의 실험’이라는 제목의 연주회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참석한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크라이슬러, 스토코프스키 등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은 새로운 거장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초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슈윈은 이 곡으로 많은 작곡가가 고민하고 시도했던 재즈와 클래식 결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작곡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클래식 기반과 그가 활약하던 대중음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랩소디 인 블루>는 제목에서 이미 재즈 스타일로 만든 클래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당김음과 포르타멘토(두 음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미끄러지면서 연주하는 주법) 등 재즈 스타일의 유쾌한 부분과 클래식 스타일의 진지한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는 ‘보통 빠르기-느리게-빠르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적절한 피아노 카덴차도 있어 피아노 협주곡의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페는 초연 이후 1926년과 1942년에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해 다시 편곡했으며, 오늘날 콘서트 무대에서는 후자인 1942년 버전이 주로 연주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첫 시작부터 긴 글리산도로 강한 인상을 주는 클라리넷이 곡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초연 당시 피아노 독주뿐만 아니라 클라리넷의 연주도 경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클로드 볼링(*1930) : 플루트와 재즈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1번 (1973)

Claude Bolling : Suite No. 1 for flute and jazz trio

클로드 볼링은 프랑스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로, 빅밴드 재즈를 즐겨 연주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과 함께 연주한 <플루트와 재즈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이 인기를 얻으면서였습니다. 이 곡은 모두 일곱 곡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후에 여덟 곡으로 이루어진 2번도 작곡되었죠. 이 곡들은 단지 재즈뿐만 아니라 클래식과 민속 음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여인’은 아주 유명하여 플루트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연주해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야코브 가데(1879~1963) : 질투 ‘집시 탱고’ (1925)

Jacob Gade : Jalousie Tango Zigane'

덴마크 바일레(Vejle) 태생의 영화음악 작곡가 야코브 가데는 <질투 ‘집시 탱고’> 한 곡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코펜하겐의 팔라스(Palads) 극장 오케스트라 리더 시절이었던 1925년에 무성영화 ‘돈 Q 조로의 아들’의 영화음악으로, 그해 9월 14일 초연 즉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1935년에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

주로 녹음한 최초의 음반 역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곡은 여러 영화에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편곡으로 연주되고 또한 여러 음반으로 제작되었죠. 가데는 이 곡의 로열티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돈을 벌었으며, 그 덕에 작곡만 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질투 '집시 탱고'>는 사라사테의 <치고이네 르바이젠>과 견줄만한 화려한 바이올린 독주가 돋보이는 '유혹의 주제'로 시작하며, 곧 서정적인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전형적인 탱고 리듬의 반주 위에 흐르는 살롱풍의 우아한 멜로디는 영화 '여인의 향기'의 유명한 탱고 장면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야코브 가데 / 출처 : play.primephonic.com



영화 '돈 Q, 조로의 아들' 포스터
/ 출처 : en.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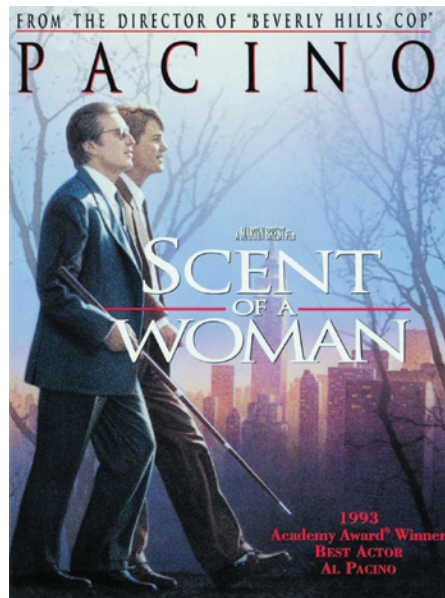
카를로스 가르델(1890~1935) : 머리 하나 차이로 (1935)

Carlos Gardel : Por una cabeza

1974년 디노 리시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여인의 향기'는 1992년에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이 리메이크 영화에서 알 파치노는 주인공인 퇴역 장교 프랭크 슬레이드 역을 맡아 완벽한 맹인 연기를 보여주었죠. 이 영화의 여러 장면 중 슬레이드가 한 고급 식당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 도나에게 탱고를 가르치며 추는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주되었던 곡은 큰 인기를 얻어 자주 연주되고 있죠. 바로 '탱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카를로스 가르델의 노래 <머리 하나 차이로>입니다. 이 제목은 본래 경마 용어인데요, 가사는 연인에 대한 사랑을 경마에 비유하고 있죠. 남녀가 서로를 모색하는 듯 낭만적인 멜로디로 시작한 후, 곧 리드미컬한 반주에 사랑의 열정이 가득 담긴 강렬한 멜로디가 펼쳐집니다.



카를로스 가르델 / 출처 : en.wikipedia.org



영화 '여인의 향기' 포스터 / 출처 : amazon.com

아스토르 피아솔라(1921~1992) : 망각 (1982), 위대한 탱고 (1982)

Ástor Piazzolla : Oblivion, Le grand tango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는 '누에보 탱고'(nuevo tango : 새로운 탱고)로 또 하나의 신세계를 창조한 피아솔라일 것입니다. '누에보 탱고'가 기존의 탱고와 다른 점은 재즈의 확장된 화성과 불협화적 화음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피아솔라의 누에보 탱고 작품은 재즈 스타일의 당김음이 연속되는 긴장된 리듬과 강렬한 멜로디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서정적인 느린 음악도 대중적인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아스토르 피아솔라 / 출처 : prod5.agileticketing.net



영화 '엔리코 4세' 포스터 / 출처 : amazon.com

의 후배 음악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피아솔라는 20대 후반부터 평생을 걸쳐 약 60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망각>은 1984년에 개봉된 마르코 벨로키노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엔리코 4세'의 음악으로, 1982년에 관현악단의 연주로 녹음되어 영화에 사용되었습니다. 피아솔라는 이 곡을 자신의 오중주 앙상블로도 연주했으며, 오늘날에는 기악 앙상블이나 노래 등 다양한 형태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죠. <망각>은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가며 감정을 굴절시킵니다. 이러한 다중적인 감정의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멜로디는 도피하고자 하는 열망과 체념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위대한 탱고>는 1982년에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초연은 8년이나 지난 1990년에 뉴올리언스에서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로 이루어졌죠. 이 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 '탱고의 빠르기'는 현대적인 불협화음과 강렬한 리듬을 타고 노래와 같은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분 '덜 빠르게 : 자유롭게 그리고 노래하듯이'는 감정을 표현한 대화이며, 마지막 '더 빠르게 : 활발하게'에서는 리드미컬하고 격렬한 춤을 춥니다. 다른 작품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악기를 두드리거나 브릿지 아래에서 연주하는 타악기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클래식 연주자를 위해 쓴 만큼 표현 범위를 클래식 주법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에보 탱고의 극적인 표현은 이 곡에서도 유감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림 9. 폴 쇠필드

폴 쇠필드(*1947) : 카페 뮤직 (1986)

Paul Schoenfield : Café Music for piano trio

폴 쇠필드는 미국을 대변하는 작곡가입니다. 클래식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팝과 포크뮤직이 흐르고 있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말이죠. 어쩌면 이러한 적나라한 설정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삼중주곡 <카페 뮤직>은 포크뮤직과 로맨틱 뮤직 등 미국의 다양한 대중적인 장르들이 혼합되어있죠. 제목을 보면 20세기 초 유럽의 살롱 음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를 그렇게 과거에 두고 보면 래그타임과 블루스의 응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감출 수 없는 악동 기질일까요, 아니면 탈아방가르드라는 시대적인 요구의 발현일까요? 감상자가 처한 환경과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비칠 테지만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즐거운 음악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